

# 열 손가락으로 부처님 법음을...

(수화)

도원 스님 (부산 여래사 주지)



도원 스님은 ... 1951년에 태어나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13년 위덕대 불교문화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위덕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2014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고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1997년 조계종 포교원장 포교상, 2010년 4월 20일 부산시장 표창상, 2010년 10월 5일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현재 부산 해운대서 여래사 포교원 주지를 맡고 있으며, 매달 청각 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봉행 중이다. 사진은 연꽃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는 도원 스님.

법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던 한 노 보살이 눈에 들어왔다. “법회가 곧 시작하니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는 한 스님을 노 보살은 쳐다보지 않았다. 스님은 재차 불렀지만 이 보살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스님이 왜 반응이 없을까 싶어 어깨를 살짝 건드리자 노 보살은 작은 수첩을 꺼내 들며 적어 내려갔다.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님은 순간 멍해졌다. 평소 청각장애인과 잦은 만남이 있었던 스님이지만 사찰에서 청각 장애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스님의 생각은 왜 그동안 사찰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만나지 못했을까로 췌었다. 이 보살이 말한 ‘법문을 들을 수 없다’는 것에 집중했다. 이 작은 인연 이후 이 스님은 22년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법을 나서게 된다.

이 스님은 해운대 여래사 주지 도원 스님(64)의 이야기다.

도원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법회와 쌀나눔 및 장학금 전달, 장애인 학생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운대 여래사 포교원에서 10월 12일 스님을 만나 스님의 일생에 대해 들었다.

### 열악한 장애인 포교 현실에 발심

도원 스님은 22년 전 위의 노 보살과의 만남 이후 수화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화엄법계사 불교문화대학(舊 부산불교 교육원)의 불교 수화반에 1기로 들어갔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에 가입하고 날마다 청각장애인들을 만나 연습했다. 또 이미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교를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교회를 5년 동안 다니며 그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전국에 수화를 활용하는 곳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수화는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매일 마다 연습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에게 법문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곳을 찾을 필요가 있었지요.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법회를 열었습니다.”

스님은 수화를 완벽히 익히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하루라도 빨리 부처님을 법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당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찰을 돌아다니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열 때마다 적게는 5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법당을 가득 채웠다.

“부산에 각 사찰의 스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래 자비암, 범어사 내원암 등 사찰을 돌면서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해운대에 여래사 포교당을 개원했습니다.”

스님의 포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한번도 진행된 적 없었던 청각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여는가 하면 수련회 캠프를 열고 발우공양 및 산사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왔다. 스님은 쌀 나눔과 장학금 전달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이밖에 환경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질한 고층을 해결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번은 법당에 나오면 장애우가 횡단보도를 건너

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돼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이라 통역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구요. 이처럼 청각장애인은 삶 속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스님은 교통사고를 당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스님은 최근에는 핸드폰과 같은 IT기술이 발달해 예전보다는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장애인들을 위해 해외불교문화 탐방 가이드도 자처하는 한편, 사경을 통한 한글교육 등으로 삶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화는 지화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글의 자음 모음을 엮어 글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런 지화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집안에서 천대받고, 교육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자 한글자 쓰며 지화호 의우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지화를 가르친 결과 가족들이 더 반가워 했다고 밝혔다.

“음의 파장을 이용하기 위해 북을 이용합니다.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파장은 미세한 흔들림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청법기나 찬불기는 모두 수화로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장애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님은 법회 때마다 ‘보시바라밀’을 설한다고 했다.

“수많은 장애인들은 대부분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어디 법당이나 교회에서 무엇을 나눠준다고 하면 100명이 넘게 모이곤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받지 않아도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역으로 보시바라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장애인들에게 나누는 사랑이 되기를 강조한 지 5년이 지나지 이제는 법당을 찾아오는 장애인 불자들이 늘고 있다.

“처음에는 마치 썰물처럼 빠져 나가더군요. 이런 처지에 누구를 도우라는 것이냐는 것 마냥요. 하지만 보시의 중요성을 계속 설명해주니 삶이 변화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복에만 매달리던 이들이 법당을 찾으며 수복(修福)의 단계를 그리고 작복(作福)의 단계로 올라서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 사업 실패로 인한 삶의 회의가 출가로 이어져

스님은 출가 당시의 시절을 돌이켜 보며 수많은 역경이 자신을 출가로 이끌었으니 감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스님은 먼저 어릴적 할머니의 깊은 신심으로 불자가 됐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들어가실 때도 손에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신심이 크신 할머니와 함께 초파일이 되면 등을 달고 밤새 등 아래에서 기도를 올렸죠. 할머니께서는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 인연으로도 관음기도를 자주 합니다.”

남달랐던 불교의 인연을 시작으로 스님은 어릴 적부터 출가의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몸이 쪼다지는 말과 함께 출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절에서 여러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장성해서 자수성가를 꿈꾸며 섬유계통 사업을 벌였는데 불이 세 번 나고, 수해를 한번 겪으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스님은 “발명특허를 받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재만만 없었으면 탄탄한 성공대로를 달렸을 것이지만 구가 불을 낸다고 해도 그렇게 자주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때 당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어설려 해도 의지가 생기지 않았죠. 출가를 한 후 제 길을 찾았다 싶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을 위한 귀가 되어야 하는 부처님의 이교심이라 지금은 생각합니다.”

### 복지관 및 수행도량 봉사원력 세우

도원 스님은 2012년부터 시작한 100만배 및 대다라니 108독송 천일기도를 8월 19일 회향했다.

기도에 동참했던 한 여래사 신도는 스님의 가사를 보여줬다. 모두 무릎 부분이 닳아 구멍이 나고 너덜했다. 스님은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장애인들을 잘

### 청각장애인에게 법문 통역 22년

#### 법회 · 수련대회 등 포교 진행

####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서원 세우

#### 100만배 및 다라니 천일기도 회향

###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법회 도입

도원 스님의 법회 통역의 특징은 ‘쉬운 언어 사용하기’다. 스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통역은 또 하나의 언어 장벽이 될 뿐이라고 강조한다.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불교 통역에 있어서 한자로 되어 있는 어려운 단어들 많이 때문에 통역을 해도 법문의 30%정도 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님은 해박한 불교지식과 그 순간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해 어려운 고승대덕 스님의 법문을 거뜬히 풀어낸다.

“수화는 손 뿐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도 많은 감정과 뜻을 전달합니다. 이 때문에 오해를 살때도 있습니다. 법회에서 스님이 서서 얼굴을 찡그리고 웃고 손을 막 움직여대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오해보다 장애인들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법회는 통역만이 문제가 아니다. 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달할 방법이 모호했다. 스님은 북을 사용한다고 했다.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 법당조성 후원자를 찾습니다

### 후원해 주십시오

일생동안 불교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행도 많이 하여 법보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행을 하고 법보지도 합니다. 법당을 조성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하고 가문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은 태아영가, 조상영가천도와 기도를 해드립니다.

상담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세요. 후언해 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후원도 좋고 훌륭한 분 추천도 환영합니다.

창업, 개업을 하실 분 상호, 좋은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홍증 ☎ 02)739-5008

##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자녀 교육문제, 대학 입시기도
- 사업성공, 가족갈등
- 변비, 지방간, 당뇨, 비만, 알콜중독, 특별기도와 지도함

가정 및 회사 방문하여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010-6789-5008

# “장애우 복지는 원력 불사”



2013년 위덕대서 열린 불교학도의 날에서 수화공연을 하는 도원 스님(사진 왼쪽서 두 번째)



2014년 초파일 불초법회에서 청각장애인과 함께 법회를 여는 모습.



청각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산사문화제 및 템플스테이가 끝난뒤 기념 촬영 모습.



청각장애인 템플스테이에서 도원 스님이 자원봉사자들과 활짝 웃고 있다.

보듬을 수 있는 복지 시설과 수행도량의 불사를 위해서 라고 했다.

스님은 한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이 절을 했다. 땀이 흘러 가사가 흥건하게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찢어 지고 헤어졌던 가사는 온통 구멍투성이다.

“원을 세우고 기도를 시작하고 30만배를 할 때였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더군요. 하지만 아픈 것보다는 번뇌와의 싸움이 더 힘들었습니다. 법당으로 나가는 거리가 7미터도 안되는데 육신과 번뇌와의 싸움이 반복됐습니다. ‘왜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법당에 부처님 앞에 서기까지 3시간이 걸리더군요. 마음에 망설임은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절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매일 천배씩 3년간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라 했다.

“40만 배를 넘어서고는 불사를 위해 시작한 기도 내용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더군요. 내 마음의 불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불사는 그 후이며 내 마음이 바로 잡혀 지길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내 마음의 불사가 바르게 되고 난 뒤 그 위에 도량 불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스님은 50만배가 지난 후에는 번뇌가 없어졌다고 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업을 짓는 거 같아 마음이 무거워 졌다고 했다.

스님은 앞으로 복지를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 장애인과 아울러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등 복합적인 복지 사업을 위

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기관을 위해 외적으로는 경제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2014년에 취득했지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자격도 갖춰야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했고 좋은 인연과 지혜로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스님은 위덕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문화학을 전공하며 복지에 관해 연구 중이다. 내년이면 졸업을 맞게 되는 스님은 현재 ‘불교 사회 복지의 현대적 모형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준비하며 불교 복지에 대한 이론도 완성했다.

“현대 사회는 몸에서 일어난 장애 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진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위빠사나, 사마타, 참선, 염불 등 다양한 수행은 다각면에서 다양한 사람에게 맞추어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인적인 복지는 바로 몸과 마음을 모두 보살 필 수 있는, 불교만이 줄 수 있는 해답을 의미 합니다.”

스님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했다.

“나이가 많아져서 그만 할 때도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 하지만 저는 돌이켜 가만히 보면 저 말고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더군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 일을 하냐고... 그 때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스님은 20여년 전에 만난 노 보살은 법당에 들어올 엄두도 못냈는데 이제는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매 달 법회를 듣고 복을 지으며 살아간다고 이 것이 이 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라고 했다.도원 스님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전국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법회를 여는 곳은 제가 알기로 서울 2곳, 그리고 부산은 이곳 여래사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부처님 법을 알고 싶어도 기도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자료화 되어 있는 것도 부족하고 그들을 위해 법문을 통역할 봉사 인제들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원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과 만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 종교인들과의 만남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에 비해 불교계는 아직도 열악합니다.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자리를 자주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발우공양도 가르치고 박물관도 가고 했던 기억은 너무나 소중한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법은 위 아래 그 어느 곳에도 구분 없이 펼쳐져야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으며 스님은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연꽃을 의미하는 수화를 보여줬다. 스님의 손을 보며 천수천안관세음 보살님의 손이 떠올랐다. 들리지 않는 이들의 소리가 되어 하루에 천개의 손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대자비의 손이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 전법일기

### 탁발하는 수행자

70년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마을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는 풍경이 스님들의 탁발하는 모습이다. 모두들 사는 것 자체가 귀찮고 먹을 것도 귀찮던 시절이다 보니 탁발이라 해봐야 대부분 쌀이나, 보리쌀 같은 잡곡을 한 움큼씩 시주 하였던 것 같다.

그런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밖에서 엮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스님이 탁발을 나온 것이었다. 나는 당황해하며 “집에 어른들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하니 스님은 개의치 않고 “어린 시주님 시주 좀 하세요”라고 하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고 물으니 “돈이나 쌀로 시주 하면 됩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돈은 없고 쌀로 드릴게요”하니, 스님은 메고 있던 걸망을 펼쳐며 “여기에 담아주십시오”

도 지금은 세상에 안계시고 그때 그 스님도, 나도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간 한 토막의 일화로 기억되어 있지만 막상 내가 탁발하는 화주님이 되고 보니, 그 시절 그 일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탁발과 관련한 설화를 보면,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늘어나고 수행력이 깊어지는 것에 불안해진 마구니 무리들이 스님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승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여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마구니들의 의도와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공평해진 스님들의 수행력은 더욱 수승해지고 승단은 오히려 확장되어 갔다.

이에 고민하던 마구니들이 이번에는 공양물을 넘치게 시주하고, 극진히 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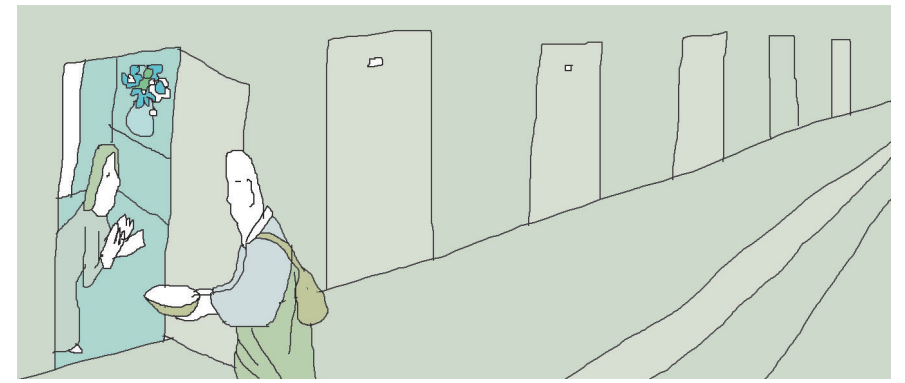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는데 아마도 탁발이 첫 집이었는지 걸망이 텅 비어있었다.

그래서 걸망을 뒤주에 대고 쌀을 퍼 담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걸망 속 깊이가 어디가 끝인지 한참을 퍼 담고서야 걸망을 다 채울 수 있었다. 스님은 쌀이 가득한 걸망을 챙겨서는 “시주님! 공부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훌륭히 사라졌다.

뒤주의 쌀은 보기에다 확 줄어들었던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기분은 한껏 뿌듯했다. 외출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저녁밥을 하시려고 뒤주를 열다가 깜짝 놀라시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신다. 그래서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또다시 엮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엮물곡조가 늦여름 석양의 노을을 타고 와서 그런지 더더욱 구성지게 들려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머니에게 “시주 좀 하십시오?”하는데 이게 웬 일인가? 낮에 보았던 그 스님이었다. 어머니님

하도록 술수를 부렸다. 그러자 수행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종단에서도 탁발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탁발할 일도 없어졌다 보니 탁발이라는 단어조차 생경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무소유로 일컬어지는 삼의일발의 수행자 정신’은 탁발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탁발은 불교의 사상을 아우르고 비구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수행법이다. 비구는 범어로 비크슈(bhiksu), 팔리어 비쿠(bhikkhu)를 음사(音寫)한 말로써 결사, 포마, 파악, 제근, 근사님이라 한다. 이 말을 의역하면 결사는 위로는 법을 빌고 아래로는 밥을 비는 결식 수행자란 뜻이다. 기부에 대한 원천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종단의 현실이 안타깝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라! 삼륜이 청정한 불국토를 위하여 ‘탁발의 정신’을 재삼 되새겨 볼 일이다.



부명 스님(백령도 동운사 주지)

##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의장등록

### 사업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이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 등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돼,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려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 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무료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개입선물, 사업성공의 선물로 품격

- ▶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 문의 : (02)723-4533
- ▶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사할 · 스님 20% 할인)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평생부자지갑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아가는 데 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달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얻고 평생부자로 살게!!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에나멜 처리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을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별도로 읊지된 교툰카드 꽂기도

있다.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23-4533 (사할 · 스님 20% 할인)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www.kapilla.co.kr \* 공휴일 접수 가능



앞면 뒷면 의장등록

호신불규격직경 3.5cm, 세로 4.5cm

###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치!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용 호신불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치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열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열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

전경을 발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 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 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 인생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일

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리가 위고,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할 · 스님 20% 할인) 문의 : (02)723-4533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